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승천 대축일, 부활 제7주일
제37권 27호(가해) 2017년 5월 28일

[묵상]



<주님승천 대축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이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 단편적 사실만 보지말자.

만일 예수님의 승천이
당신 혼자만의 승천으로만 끝났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또 하나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요, 희망이다.
승천은 새로운 존재 양식의 가능성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천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여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것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 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진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형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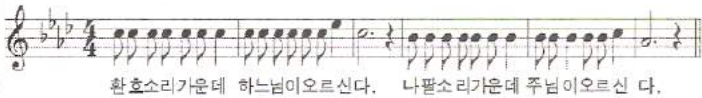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토요 저녁 미사	(연)서성용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학생 미사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생) 제니퍼박 아네스 & 메디슨박 엘리사벳 & 브라이언 박 레오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지아,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정례 수산나,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 김정숙 지용애 & 이경석 & 이봉수, 이증순 마리아,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 마리아, 현대순 레지나 (생)한영 올리아, 손석 스테파노, 엄정자 분다, 토런스 북구역가정들, 정동호 하상 바오로가정, 정애나 세라피나 & 에릭가정, 박인양그레고리오 & 최영이 베로니카, 이종원 베드로가정,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1-11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제 2독서 에페소서 (Ephesians) 1,17-23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
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10. 저는 매력적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회칙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되면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저의 길잡이로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생태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수호성인으로 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 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하셨고, 또한 그 기쁨, 관대한 헌신, 열린 마음으로 큰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맺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사셨던 신비주의자이시며 순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 지를 보여주십니다.

11.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통합 생태론이 수학과 생물학의 언어를 초월하는 범주에 대한 개방성을 요청하고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시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19)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신 것입니다. < 계속>

19. 켈라노의 토마스,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 1’(Vita Prima di San Francesco), X X IX, 81, FF 460.2012.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72	172	172
봉헌	267	267	265
성체	299	299	305
파견	172	172	172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5월이면 유독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얼마 전 팔당에 있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벽 산허리를 감고 있는 안개는 아침 햇살에 비쳐 마치 천국에서 비추는 빛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절을 드리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어느새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수업 참관을 위해 학교에 오셨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 속에서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지고 새까만 얼굴에 웃도 허름한 한복을 입고 오셨지요. 난 친구들에게 아직 어머니가 안 오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서 집으로 썰하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집에 왔니 엄마랑 같이 오지 그랬어’ 하시는데도 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늙으신 것도 변변한 옷가지 하나 없던 것도 모두 자식들 때문인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계셨을 텐데 싫은 내색 한번 안 하셨습니다. 전 제가 용서를 청해도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압니다. ‘괜찮아요, 둘째 신부님, 이 에미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내 자식들만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공부시킬 수 있으면 난 굶어도 헐벗어도 괜찮아요.’”

자식들을 목숨처럼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함께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서 주님의 승천을 묵상해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 안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우리는 못 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간호사들의 모범인 나이팅게일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늘 함께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기다릴 땐 지루했지만

주로 중고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편인데요, 중고서점에 읽고 싶은 책이 없을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기다리곤 합니다. 가끔 의기소침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장바구니에 담아둔 책을 '저지르듯' 결재하는데요, 새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큰 부자가 된 듯 뿌듯해집니다. 이럴 땐 아껴둔 것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조병준 플러렌시오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이만석 미카엘	한정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러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 제14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선수들과 응원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그리고 행사 진행 을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 고등학생 전진 축하합니다.
고등부 학생 7명이 지난 27일(토요일) 성 마가렛 매리 본당 에서 죠셉 사토리 주교님을 모시고 전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정우 프란체스코선생님, 황씨니 비비안나선생님 감사합니다.

Anthony Chong, Esther Lee, Spes Lee,
Jennifer Park, Connie Kim, Leah Kim
Augustine Ahn

◆첫 영성체 부모피정

- 일시 : 6월3 일(토요일) 8시30분
아이들과 함께 8시 20분까지 성당으로 오세요.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전후 30분
- 연락처 : 정테레사 ☎(310)650-6993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 격: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4.29.2017 ~ 5.3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 8월6일2017년 (주일)
- 문의 : 본당 신부님

◆2017-18년도 한국학교 1학기 등록 접수

-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 시 20% 할인혜택 (단SAT반 제외)

◆ 2016-17년도 한국학교 2학기말 시험

- 일시: 6월 11일
- 시상식: 6월 18일 종업식 중

◆ 2016~17년도 종업식

- 일시: 6월 18일 오후 1시30분~3시
- 장소: 강당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cks@gmail.com

◆ 빈첸시오회에서 노숙자 쉼터에 계시는 분들께 전달할 깨끗한 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25일까지 친교장 단상 위에 박스를 놓아두겠습니다.

◆오늘 주일(28일)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주일학교, 한국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사무실은 대체 휴일로 화요일에 휴무입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 28일: Memorial Day연휴: 친교자리 없음
- 6월 4일:김밥(\$4) 사발면 (\$ 2, 하버/카슨 봉사담당)
*주일학교 : 쇠고기 주먹밥(K,1,9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김광자 김교복 김대우 김병조 김상규 김씨니 김정엽 김진우 박개순 서재원 신순철 신용섭 양영관 우영희 유보나 윤현정 윤화경 이상곤 이종선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임연조 장영우 장영진 정연영 최동한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김광자 김교복 김대우 김씨니 김정엽 박개순 서재원 신순철 신용섭 양영관 윤화경 이상곤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장영우 장영진 한창주 황지영
합계:\$4,090	합계 : \$1,630
주일미사헌금 :\$2,276	감사헌금 : \$855(석순영, 이미예)

남가주 소식

◆제 23차 남가주 선택주말 (Choice Weekend)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
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일시 : 8월 11일 (금) ~ 8월 13 일 (주일)
 - 대상 : 24 ~ 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 남녀
 - 참가비 : \$300 (신부님께 본당 지원 가능 확인)
 - 신청마감: 6월 18일
 - 대표전화:곽효신 미카엘 (213) 568-5470
또는 23rdchoiceweekend@gmail.com
-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성 토마스 성당 하루 피정 "오늘"

- 일시: 7월 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본당 토마스홀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참가비 : \$15.00(간식,점심 포함)
- 신청 : 6월첫 주부터 (선착순70명)
- 문의:Clare Chung (chiaralite@gmail.com)

◆토마스 성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GLORIA"

성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성 토마스 성당 성가대,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기쁜 행사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6월 4일 (일요일),시간 : 오후 5시
- 장소 : 성당
- 티켓 : \$10 도네이션
- 고상옥 대건 안드레아 ☎(714)772-3995 ext.105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윤미애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페드로 218-734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 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느 부모나 어느 조부모든 자기 자식, 당신 손주가 제 일 잘나고 천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팔블출 소리 안 들으려고 자랑하고 싶어도 참고 참고 또 참다가, 확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제 가족에선 그 발단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아기를 갖고 난 후에 태교 해야 한다는 강박은 모든 임신부들에게 있을 겁니다. 가장 흔하게 하라는 태교는 엄마, 아빠가 소리를 내서 동화를 읽어주라는 것일 겁니다. 저도 임신만 하면 해야지 마음먹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자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들에게 동화책을 재미나게 읽어주는 건 아주 쉬웠는데, 동 그렇게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태교에 좋다는 이야기를 실감 나게 읽어주는 일은 왜 그리 낮간지럽게 여겨지던지, 한두 번 성의를 보이다 선물 받은 태교 책 들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하나는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주일 청년 미사 때 노래로 부르던 주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성가 곡이란 것을 떠나 참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미사에 가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 마음에 안식이 가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마음먹은 이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주님의 기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끝에 아멘은 좀 변형해서 '아멘 아멘 아아아 아멘 아멘 아멘'

마치 합창을 하듯 나를 웅장하게 끝맺도록 강조해 불렀습니다. 그렇게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자장가 삼아 매일 밤 불러줬습니다.

아이가 21개월이 되었을 즈음, 잠자리 들어간 방에서 갑자기 '하아 하아' 하며 계속 졸라댔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늘에 계신~'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또 몇개월이 지나자 주님의 기도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두 돌이 되기 전 아이는 주님의 기도를 끝까지 혼자 노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에 아멘까지도 제가 하던 방식대로 여러 번 강조하며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손주 자랑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던 시어머니도 동영상으로 찍어 친지들에게 공개하며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낮잠을 잘 때도 혼자 주님의 기도를 부르다 잠드는 아이를 보며 엄마도 신통방통해 하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아기를 낳고 자장가로 불러 줬을 때도, 주님의 기도 노래는 끊지 않은 저의 믿음에 단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의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육아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려주는 단비 같은 기도. 부정적 기운이 강하던 제가 그 힘으로 매일 매일의 마무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직 기도가 어색한 분들, 좋아하는 성가로 대신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아이와 함께 소리 내어 주님의 기도를 노래해봅니다.

◆ 정세진 아네스/ KBS 아나운서

[이게 궁금했어요]

목주기도로 장미꽃을 바친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정해진 까닭은 무엇인지요?

☞목주기도는 '장미 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rosarium입니다. rosario란 단어도 '장미 꽃다발' 혹은 '장미 화관'이라는 라틴어이지요. 초기 교회 신자들이 기도를 대신하여 장미 꽃다발을 바쳤다는 사실이 목주기도의 전형으로 전해집니다. 또 수도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시편을 50편이나 100편, 또는 150편을 매일 외워 바칠 때, 글을 모르는 수도자들에게는 시편기도를 대신해서 주님의 기도를 그 숫자만큼 바치게 했던 일에서 유래되었답니다. 그들이 수를 세는 일이 용이하도록 나무 열매나 구슬 150개를 가는 줄에 꿰고 혹은 작은 돌멩이나 곡식 낱알을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러가며 기도의 횟수를 셀 수 있게 했던 일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의 순교자들이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고 순교한 일이 그 시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을 쓰는 행위는 자신을 신에게 바친다는 결의로 표현되던 풍습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로 머리에 꽃 관을 쓰고 순교 당했던 것이지요.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어들였던 남은 신자들이 순교자들의 머리에 썼던 장미 관을 모아서 꽃송이마다, 마다 기도를 바쳐 올렸다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 목주기도 안에 깃들여 있습니다.

◆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삼종기도(Angelus)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 1,38 참조)

해 질 무렵 일손을 멈추고 겸손하게 저녁기도를 바치는 농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밀레의 그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선 ‘만종(晩鐘)’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제목은 ‘삼종기도(Angelus)’입니다.

삼종(三鐘)은 종을 세 번 친다는 말입니다.

삼종기도는 하루 3번 일과를 멈추고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밀레 그림의 장면은 해가 저무는(晚: 저물 만) 그 시간에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삼종기도를 ‘Angelus(안젤루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삼종기도의 라틴어 기도문이 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Angelus Domini nuntiavit Mariae, Et concepit de Spiritu Santo.”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루카 1,28 참조)입니다. 이 한문장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드러냅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 1,38 참조)

마리아의 신앙고백인 이 피앗(Fiat: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형)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요한 1,14 참조) 비로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종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 준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루카 1,26-37)를 기념하기 위하여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모송을 바칩니다. 삼종기도는 해돋을 무렵(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정오(잠시 쉬는 점심)그리고 해 질 무렵(하루 일을 바치는 저녁)에 바칩니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강생(降生)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7)

Quiz본문을 참조해 뜻과 의미를 잘 연결해 주세요.

- | | |
|----------------|-----------------|
| 안젤루스 ①• | •⑥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
| 피앗 ②• | •⑦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
| 주님의 천사가 ③• | •⑧ 천사 |
| 마리아께 아뢰니 이에 | •⑨ 해돋을 무렵, |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④• | 정오, 해질 무렵에 바칩니다 |
| 삼종기도는 ⑤• | •⑩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

5월21일 자 정답:

	콘	클	라	베		축	성		이
				네		복			스
	오			덕		스	카	풀	라
콘	세	크	라	시	오		인		엘
				오		방	사		

* 부활시기 동안에는 부활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성경 속 동식물」 21 고고하고 점잖은 사슴

성경에서 사슴은 양과 같이 좋은 동물로 소개된다. 사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시편 42,2-3이다. 생명의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목마른 새끼에게 먹일 물을 애타게 찾는 양사슴에 비유해 노래한다.누구나 먹을 수 있는 좋은 짐승(신명 12,15)으로 소개되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이사 35,6) 사슴은 언제나 고고하고 점잖은 동물의 이미지이다.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겐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빌리지에 몰네)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네)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